◈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창인 편집인 : 김은호 편집국장 : 조선근

교구별 영성훈련 개최

3월 13일부터 연 1회 이상, 교구 일꾼 중심으로 목, 금요일 중 하루 선택, 교구 특성에 맞게 실시 교회 부흥과 개인 신앙 성숙 위한 특별 기도회도

교구위원회에서는 각 교구별로 영성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3월부터 1년간에 걸쳐서 년 1회 이상 모든 교구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영성훈련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는 교구의 교역자들과 일꾼들이 만나서 교구의 상황들을 점검하며 서로간의 깊은 영적인 만남의 시간들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과 서로간의 갈급한 심령들을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시간들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의 영성훈련에 따른 일체의 예산은 교회가 지원함에 따라 모든 교구들은 보다 더 부담없이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교구별 영성훈련은 이전에 일부의 교구만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실시하던 것을 전체로 확산한 것이어서 전 교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개인의 영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따라서 각 교구들은 교구의 특성에 따라서 정해진 날짜에 자체의 영성훈련을 실시하여 교구별로 깊은 기도의 시간 및 영적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음은 물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전체 교구 일꾼들의 영성훈련과 아울러 교구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중요한 시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같은 교구별 영성훈련은 다음의 일정에 따라서 실시될 것이며, 자세한 사항들은 각 교구모임 시간을 통하여 교구별로 전달이 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충현의 모든 식구들은 이같은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교구	일자	교구	일자
1	3월 13일(목)	2	3월 14일(금)
3	3월 20일(목)	4	4월 3일(목)
5	4월 10일(목)	6	4월 17일(목)
7	4월 24일(목)	8	10월 10일(금)
9	5월 8일(목)	10	5월 16일(금)
11	5월 22일(목)	12	5월 23일(금)
13	4월 18일(금)	14	5월 27일(화)
15	5월 1일(목)	16	5월 2일(금)
17	4월 25일(금)	18	6월 6일(금)

19 매달 마지막 금요일 오후 8시-10시
(교구모임 및 영성회복을 위한 기도회)

새신자환영회

금년들어 첫번째 새가족환영회가 지난 주일(2월 23일) 4부예배 후에 갈릴리홀에서 모였다. 이번의 새가족환영회는 잘 계획된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진정으로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따뜻한 축하와 격려 속에 진행됐다. 기독교TV 방송에서 제작한 교회 소개 비디오를 시청하고 환영의 순서를 가지며 축하하는 사람이나 축하받는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다. 새가족부 여 교사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나와 한층 더 환영의 분위기가 살아났다.

예비신랑신부교육부
97-3기 수강생 모집

예비신랑신부교육부(부장 송환창 장로)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를 두고 건강한 가정을 설계하며 행복한 부부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약혼 중 또는 결혼 준비 중인 적령기의 남녀 성도들에게 혼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월 2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97-3기의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 교육기간(2개월 과정) :
  97년 3월 2일~4월 27일
  매주일 오전 10시 30분~12시 40분
- 교육장소 :
  교육관 208호., 209호
- 교육내용 :
  ① 성경적 결혼관 ② 부부의 심리 및 성격 ③ 혼수 준비와 가정 경제 ④ 가정법률상식 ⑤가정의학상식 ⑥ 부부대화 ⑦ 배우자 가족과의 바른 관계 ⑧ 건전한 성생활(1시간 강의, 1시간 분반-공부)

전도위원회
전곡충현교회 설립기념예배 지원

전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2일 전곡충현교회(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에 소재)의 설립기념예배를 지원하였다.

이 교회는 원래 군인교회였는데 금년들어 민간교회로 바뀐 것이다. 이날 기념예배에는 우리 교회에서 장경철 목사를 비롯하여 장로, 권사, 집사 등 24명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며 기념품을 전달하였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

청년2부 수련회
3월 3, 4일 갈릴리홀에서

청년2부에서는 오는 3일(월)과 4일(화) 이틀 동안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갈릴리홀에서 겨울수련회를 실시한다.

강사는 김철해 목사(철학박사, 소성서학원 원장)이다. 이번 수련회는 '믿음과 자유, 그리고 생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참석 회원이 요한복음을 상고하면서 성경적 신앙관을 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의회 공고

- 일시 : 97년 3월 2일 4부예배 후
- 장소 : 본당
- 안건 : 30대 장로, 11대 집사, 39대 권사 선거의 건
- 참석 : 충현교회 세례교인

성경연구원, 선교연구원 전반기 개강

선교연구원, 3월 8일(토) 개강예배
성경연구원, 3월 9일(주일) 개강예배

매년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전반기 · 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성경연구원의 '97 전반기 성경연구원 강좌가 3월 9일(주일) 찬양예배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일제히 개강된다. 97년도 상반기 강좌는 6월 말까지 진행된다.

수강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3월 9일(주일)까지 교육국으로 원서 접수를 하면 되는데, 실시과정별 강좌는 주간성경공부과정, 양육훈련과정, 교사양성부, 찬양대원양성부, 작분자 성경공부 등 5개 과정이다.

제7기 선교연구원이 오는 3월 8일(토) 오후 5시 베다니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총 30주 과정의 선교훈련을 시작한다. 전반기는 3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16주, 후반기는 9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각 과목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제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게 된다.

특히 금년도 강좌의 특성은 매년 단기선교를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단기선교의 선교적 이론과 실제를 포함하여 단기선교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모이는 선교연구원은 베다니홀에서 모이며 지원 자격은 충현교회 세례교인으로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하고 타 교인은 소속 교회 당회장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3월 8일까지 선교위원회에서 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선교후보생 모집

선교위원회에서는 2명의 선교 후보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 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② 현재 총신대학원 재학생 ③ 선교 소명자로서 소정의 교육과 훈련을 거쳐 충현교회 선교위원회 규정에 따라 파송받기를 원하는 자

- 문의 :
  ☎ 552-8200(교환 356 이승림 목사)

충현강단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환난을 당하는 성도의 자세(1)

(시편 44:1-8)

본 시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작 배경은 알려진 바가 없으나 다만 히스기야 왕 때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멍땅 삼키고 유다의 한 동네 두 동네씩을 점령하여 끝내는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꼼짝할 수 없이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유다인들은 나가서 싸우자니 힘이 없고 앉아서 기다리자니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참으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히스기야 왕을 바로 섬기면서 각자의 직책에 충실했습니다. 이때 고라 자손이 조상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지은 시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1.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어떠합니까(44:1-3, 8)

(1) 조상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지난 날의 좋았던 것을 기억하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하고, 나빴던 것을 기억하면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본 시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의 조상을 기억하며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생활을 했는가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타국에 머물 때에 억울하고 희망이 없는 선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어 바로 왕을 이기게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쫓으시고 조상을 그 땅에 심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복지를 차지한 우리의 조상들은 팔의 힘이 강하거나 무력이 강하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시어서 악한 민족을 쳐치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증거인 줄을 압니다."

이 시인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조상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라의 자손과 같이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찾아 회개하는 올바른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2) 영영히 주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종일 장사 잘할 생각을 합니다. 도적질하는 사람은 종일 도적질 할 것을 계획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종일토록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하든 목적이 선하고 마음이 바르면 그 일이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종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섯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옳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는 자에게 은혜를 끼칠까를 생각하며 안믿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전도하려는 옳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교만이 없는 겸손, 욕심이 없는 청렴, 외식이 없는 정직한 마음이 그것입니다.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선한 마음이 약해지고 맑은 양심이 어두워집니다.

둘째,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여도 얼마 있다 보면 구멍이 보이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결재를 받은 계획이라도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건강, 지혜, 물질 모두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진행하면서 기도하고 끝내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힘써 일을 해야 합니다.

인생에게는 늙는 날이 옵니다. 늙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항상 힘써 일해야 합니다. 특히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는 똑똑한 사람 같지만 제 인생도 망치고 남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못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부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은 좋지만 간섭하지 않고 자기 직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넷째,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 자랑, 지식이 있으면 지식 자랑, 기술이 있으면 기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자랑을 한 번, 두 번 하다보면 교만이 싹트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안개가 걷히면 햇빛 아래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처럼 거짓말은 잠시 후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육신은 감옥에 가고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세상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고 성령님을 안내자로 보내신 하나님,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다섯째,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날마다 넓어집니다. 신자는 감사하는 가운데 넓어진 마음을 가져야 발전을 합니다. 감사가 끊어지면 원망의 싹이 돋아납니다. 원망의 싹이 돋으면 감사는 식어지고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신자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가 종일토록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성공하는 승리의 복을 받습니다.

2. 환난당한 성도의 신앙고백이 어떠합니까 (44:4-7)

(1) 겸손하게 믿겠습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곧 우리의 임금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어 낮이 가면 밤이 되게 하시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되게 하시는 분으로 그 하나님이 곧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한 자, 거짓말쟁이, 사기꾼입니다. 고라 자손은 자신을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신데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은 존재밖에는 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남의 것을 훔치려고 사기꾼 노릇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믿음도 약해져서 꼭 야곱과 같은 꼴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고라 자손은 자기의 잘한 것을 내놓는 교만한 마음으로가 아니고 스스로 야곱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믿었습니다.

악한 원수가 해하려고 할 때에 자신을 의지하면 천 번을 싸워도 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면 완전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원수를 물리치시며 그 원수들로 하여금 망신을 당하는 패배를 당하게 하십니다.

(2)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싸우겠습니다

악한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면 천 번을 싸워도 지고 맙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길 힘이 모자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실력은 한정이 있습니다. 칼과 활이 아무리 세어도 그것으로 원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원수를 물리치시며 그 원수들로 하여금 망신을 당하는 패배를 당하게 하십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승리의 복, 성공의 복, 생명의 복을 받으며 천국에서는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시론 ▶

좋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김 찬 곤
(목사, 교구위원회 지도)

교회에는 봉사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많은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일꾼이 많다고 다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들 중에는 오히려 일을 하는데 방해꾼들도 있으며, 남들이 어떻게 하나 하는 구경꾼도 있고, 또한 삯을 받은 만큼 일하는 삯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참다운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일꾼들입니까?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입니까

먼저 일꾼으로서 '왜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3. 이웃에게 복음 전도하기 위하여
4. 후손에게 복을 전하기 위하여
5.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드릴 준비를 위하여

그리고 일꾼은 어떠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까

1. 하나님의 종(백성)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2. 같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욕심, 인간적인 명예, 생명의 문제에 겁이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3. 자세(藉勢)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알아달라는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쓰임받았음을 감사하여야 합니다.
4. 성도들의 유익(성장)을 위한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5. 날마다의 삶이 예배 중심의 자세가 된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침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6. 예수님만 자랑하는 바른 자세가 된 사람입니다.
7.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꾼을 선출하는 과정과 결과가 어떠해야 합니까

일꾼을 선출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약간의 마찰과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먼저 선생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생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자리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선거는 세상의 선거와는 다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외적인 조건이 훨씬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하여야 합니다. 일꾼들을 추천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뽑혀지도록 온전히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또한 지금 그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분별하여야 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된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을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겸손하여 오직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맡기실 때에는 그 책임에 합당한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직무를 받고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받지 못함보다 못한 것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현재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다음 기회로 미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끝까지 따라야 하고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잔치집 같은 데는 줄줄 따라다니고 초상집 같은 데는 쏙 빠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곳이든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일꾼의 신앙입니다.

또한 투표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혹시 나보다 못한 사람이 당선되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까? 나는 몇 번이나 떨어졌기에 부끄러워서 교회를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일꾼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꾼을 뽑는 일은 당회나 교역자 등 사람들이 추천을 할지라도 당선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일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금번에 우리교회에서 다시 앞장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일꾼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 일로 우리가 시험들고 흔들리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흥왕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좋은 일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뽑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

주님 오시는 길목에

쨍그렁 깨어지는 겨울의 침묵
영하의 바람속에 다스한 빛깔
나뭇가지에 뽀얀 솜털을 피우며
주님 찾아 오시는 길목엔
봄이 웃으며 웃깃에 스며든다.

하나님의 능력 숨결이 봄을 부르면
두껍게 언 산하 녹아내리고
호흡하듯 속삭이는 다사롬 눈동자
소망의 꽃 생명의 꽃으로 수놓은
약속의 꿈을 안고 찾아 오신 주님

얼었던 눈 입 귀 열리면
찬양의 멜로디 얼굴에 머금고
잠자는 육신에 영혼을 담아
봄의 소리 맞춰 가볍게 춤추는 왈츠
주님의 놀라운 솜씨 축복의 전주곡

죽음의 겨울 사신 훨훨 날아오르면
창조의 놀라운 생명의 기쁨은
땅을 깨고 부수고 뚫고
작은 생명 하나하나 약동하며
부활의 승리를 노래하는 아름다움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곳에
주님의 숨결이 닿는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봄은 모든 만물을 잉태하고
고통으로 해산하는 엄마가 된다.

김 운 섭(집사, 초등부 교사)

◀ 살며 생각하며 ▶

내주위로 (內主慰勞)

손 동 운
(장로, 찬양위원장)

우리의 인사말 중에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말이 상을 당한 가정에 하는 인사말일 것이다. 참으로 무어라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얼버무리기라 일쑤다.

그런데 불신사회에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인 듯한다. 세상에 어떠한 말로 위로한들 위로 받을 수 있겠는가. 그들도 예수를 믿었더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겠지만 불행하게도 영원한 지옥에 간 망자를 두고 애통하는 그 유족들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경우는 우리가 살아 생전에 소망하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 품안에 영생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어찌 할 말이 없겠는가. "주 안에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인사말을 주고 받는다면 이 얼마나 좋은가!

물론 소천하신 고인을 생각하면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벌써 가시다니 아쉽고 그립고 안타깝고 또 생전에 편히 모시지 못했던 일 등이 후회스럽고 죄송하고 허전하여, 또는 아직 피어나기도 전에 떨어진 꽃봉우리처럼 살다 간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한이 없으신 사랑을 베풀어 위로해 주실 것이며 잠시 후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 영생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

어느 교역자는 다니엘 7장 18절의 말씀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봉투에도 그대로 쓴다고 하는데 적절한 표현인듯 같다.

그뿐 아니라 "주 안에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면서 봉투나 화환을 보낼 때에도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근조'나 '부의'보다는 '내주위로'(內主慰勞)라고 쓰는 것이 우리 정서에도 맞고 품위도 있어 보인다.

더욱이 상조회에서 사용하는 조기에도 이렇게 쓴다면 전도의 기회로 삼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천마디의 '근조'(삼가 조상합니다)보다 단 한 마디의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가 그 가정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 안에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위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도 유교사상에서 유래되었다는 '근조'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주위로(內主慰勞)가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으로 사용하면서 최선을 향해 우리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토막소식

▶ 선교위원회에서는 오는 3월 16일 찬양예배 후 선교위원회실(선교관 405호)에서 실행위원 교육을 실시한다. 실행위원들의 선교적 관심을 새롭게 다지고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강사는 이승림 목사(선교위원회 지도)이다.

▶ 대학부에서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메추라기홀에서 제2회 대학부 신학강좌를 실시한다. 대학부에서는 회원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바탕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신학강좌를 마련하고 있다. 강의 내용은 '계시와 이성', '권위와 은총', '성경해석', '조직신학'이고 강사는 장봉생 목사(대학부 지도)이다.

▶ 실업인전도회에서는 오는 3월 10일(월) 오후 8시 갈릴리홀에서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담임)를 강사로 모시고 신앙부흥회를 실시한다. 실업인전도회에서는 그동안도 회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부흥회를 실시하여 왔다. 실업인전도회 회원뿐 아니라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주간충현(계간충현)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간충현(계간충현)에서는 보다 더 감동적이고 친근한 신문으로서 한 걸음 더 모든 독자들에게 나아가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생생하고 주옥같은 원고를 모집합니다. 혼자 가슴 속에 묻어두기에는 아까운 산 체험과 소중한 이야기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주간충현(계간충현)으로 보내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원고종류 / 간증, 수필, 시(동시), 제언, 일기, 서간문, 서평, 이런 일은 고칩시다, 각 부서 소식, 만평, 소설(동화), 콩트, 기타

2. 원고마감 /
· 계간충현 : 3월 9일(주일)
· 주간충현 : 마감이 없습니다. 다만 시사성이 있는 원고나 뉴스 종류는 게재될 전 주일 찬양예배 전까지이며, 특별한 경우는 수요일 오전까지 보내주십시오.

장년1부 겨울수련회
풍성한 은혜의 잔치

지난 2월 22일과 23일에 갈릴리홀과 집회실에서 열렸던 장년1부 겨울수련회가 풍성한 은혜의 잔치로 마쳐졌다.

금년들어 지도로 새로 부임한 박형용 목사의 '사랑이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의 명강의를 통해 참석 회원들은 성령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를 받았으며,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성도의 사랑을 쌓았다.

각종 테이프 판매 통신 판매도 가능

교회에서는 주중에 각종 찬양 테이프와 기독교TV에서 방영한 '아름다운 우리교회'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하고 있다.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들르는 수요일 2부예배 후 30분간과 금요일에도 금요집회 시작 전까지(오후 7시 50분) 판매한다.

또한 원하는 사람에게는 우편으로도 판매한다. 각 테이프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 남성중창단 CD 10,000원
· 충현찬양모음 1,000원
· 메시아공연 실황 비디오 5,000원
카세트 1,000원
· 각 찬양대 모음집 1,000원
(임마누엘, 할렐루야, 실로암, 핸드벨)
· 아름다운 우리교회 비디오 8,000원

충현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충현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1. 자격대상 :
주 1회 6개월 이상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도

2. 봉사분야 :
· 정신지체인을 위한 교육(미술, 체육)
·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검다리교실(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훈련, 보호작업훈련 등)
· 조기교육(수업보조, 현장학습, 캠프, 특수체육)
· 사무보조

3. 문의 :
충현복지관 지역사회재활과
(☎ 562-0548, 564-4885)

일본 단기선교 사역을 마치고

나의 사랑하는 일본이여

한 혜 성
(청년1부)

시부야에서였다. 왠지 위축되고 부끄럽기도한 가운데, 그리고 아무도 드러내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일본은 이 방법이 안 먹혀든다던데, 고성방가로 잡혀갈 수도 있다던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던데 …' 하는 머뭇거린 순간이 잠깐 동안 있었지만 그렇게도 길 수가 없었다. 이래야만 하나, 이 싸늘한 시선 속에서 …. 온화한 듯하지만 뼈속을 파고드는 일본의 추위가 느껴진 것도 그때였다. 완전 실패다. 그래서 일본은 무조건 안된다는 사람들이 있나보군. 역시 우리도 안돼.

시부야 역과 연결된 토큐 백화점과 그 주변 번화가 때문에 대각선 교차로는 신호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을 토해냈다. 너나 없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든지, 일본에서 그 흔한 핸드폰을 들든지, 쇼핑백을 들든지 하여 전도지를 받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내민 전도지를 온 몸으로 밀치고 다시 어디론가 꾸역꾸역 들어가고 나왔다.

잠시 한가하다가 신호가 바뀌면 일제히 이 편으로 돌진해 오는 사람들을 마주보며, 그 압도하는 홍수 속에 팔을 늘어뜨리고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다. '뭐가 저렇게들 바쁜거지? 저렇게 바삐 어디로 가는거지?' 다시 정신이 들었다. 저편에서 사또오가 연신 허리를 굽혀가며 전도지를 쥐어 주고 있었다. 약간 고개를 드니 수진이가 있었다. "힘들지? 어때, 얼만큼 남았니?" "다 돌리고 이만큼 더 가져왔어요" 역 앞의 다른 출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통통한 천사 같은 유미꼬가 예의 그 천진한 웃음으로 대답한다. 그리고는 잠시 쉴 새도 없이 전도지를 나누어 준다. "교까이데스. 욘데구다사이"(교회입니다. 읽어보세요) 터키에서는 전도하는 곳마다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셨을 목사님께서 손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계심이 확연했다. 그래도 목사님은 목사님이다. 목소리가 가장 우렁차다. 언뜻 보니 저 건너편 보도에서 핑크색 코트가 움직인다. 12살 난 주진이다. 일본어라고는 '곤니찌와, 욘데미데구다사이, 아리가또' 세 마디밖에 모르는 어린게 부모 떨어져 이 고생을 사서 하고 있다. 학교는 하루 결석하고 가방도 공항에서 잃어버리고서는 ….

인간의 물결 속에서 우리 13명은 점점 떠 있는 섬들 같았다. 낮에 남의 나라 대로에서 울지 않으려고 무던 애를 썼다. 눈물을 참으며 걷느라 내 전도지는 막판에도 좀 남았다.

'얘들 바보 아니야?' 오기 전부터 환난이 많았던 일본 단기선교였다. 구정 연휴에다 월차까지 하루씩 내서, 그것도 제 돈 수십만원 탈탈 털어가며 반기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법부터 배워야 하는데도, 난 누구누구한테 어떻게 전도지 줬다고 의기양양하게 수다를 떨고 있었다. 정말 얘들 바보 아냐?

"일본은 일본이어서 안됩니다" 이 말을 듣고 선교관을 나오며 울기 시작한 이래로 나는 울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는 일본에 대한 민망함에 가슴이 저려서, 그리고 혼자라는 외람된 생각에 답답해서 울었는데, 오늘 시부야 노상에서는 예수로 인해 하나같이 바보가 된 13명 때문에 울었다. 우리가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이 한 장 남은 전도지를 줘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언제 다시 예수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서 끝내 마지막 전도지를 못주고 손에 쥐고 돌아서야 했다는 민성이의 아이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번 고개를 돌려야 했다. 팀장은 강해야 하니까 ….

그런데도 그렇게 이를 악물었는데도 주일날 드라마 '하트'를 공연하면서 하나님역을 맡은 나는, 깨어진 마음을 심장모양으로 붙여나가는 장면에서 마침내 엉엉 울고 말았다. 깨어진 마음 한 조각 한 조각에 시부야의 뜻없이 바쁜 영혼들과 아사쿠사의 신사에서 본 제단과 참배객들과 위장된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역사의 상처를 메울 수는 없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떠올랐다. 깨어진 조각들은 하나하나 붙여지며 새 모양을 찾아가는데, 왜 그리 우리의 심장은 오히려 도려나가듯 아팠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면, 역설적으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체휼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형상대로'의 사용이라면, 그날 그 자리에서 내가 느낀 가슴아픔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욘 4:11) 망하길 바랐던 니느웨가 구원되자 성내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사랑하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귀에 선할진대 행해야 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할 일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땅이 험하고 깨어진 곳이라는 것이 잠시 좌절을 줄지도 모른다. 시부야에서처럼. 그러나 우리의 선포할 것은 '예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미래시제도 '예수께서 승리하는 중이다'라는 진행시제도 아니며, 오직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완료시제이다. 이 완료시제의 선포가 없으면 우리의 고난과 분투와 소망은 모두 헛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예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승리의 땅이다. 그곳엔 앞서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남겨두신 주의 백성이 살고 있으며 눈물을 흘리며 뿌린 우리의 씨앗이 있는 땅이다. 나의 사랑하는 일본이여!